

조선 후기 민간 사례용(四禮用) 병풍 연구

김수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후연구원, 한국미술사 전공

soojinkim@snu.ac.kr

- I. 머리말
- II. 예서(禮書)의 편찬과 사례용 병풍
- III. 사례용 병풍의 사용 양상
- IV. 사례용 병풍의 내용과 형식
- V. 사례용 병풍의 대여와 공동 소유
- VI. 맺음말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2630).

I. 머리말

본 연구는 조선 후기에 병풍 형식이 다른 장황(粧潢) 방식보다 유독 선호된 현상에 주목하여 그 사회·문화·경제사적 배경과 의미를 논구하고자 한다. 조선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사회로 유교의 이념은 의례(儀禮)를 통해 실천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왕실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의 질서를 잡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으며 병풍은 중요한 의구(儀具)로 활용되었다.

이 같은 배경을 전제로 본 연구는 민간의 유교 의례에 어떤 병풍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념을 실천하는 데에 근간이 된 이론적 근거를 찾을 것이다. 조선 사회는 남송대(南宋代)에 간행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저본(底本)으로 삼아 중국의 예학(禮學)을 조선화(朝鮮化) 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17세기를 기점으로 괄목할 만한 예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주자가례』에 대한 다양한 주해서가 간행되었다. 몇몇 유력 가문은 자기 가문의 의례 전통을 정립하기 위한 가례서(家禮書)를 따로 편찬하는 일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서(禮書)와 개인 문집에서 병풍의 사용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를 살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관련 기록과 시각 자료를 대조하여 민간에서 의례에 사용한 병풍의 양상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시각적 참고 자료로서 개화기 사진 자료 및 풍속화를 함께 검토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대표적인 의례 병풍의 주제와 형식이라 할 수 있는 ‘문자도’와 ‘양면 병풍’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자도 병풍과 양면 병풍이 담당하였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왕실 병풍이 사가로 유통된 까닭과 향촌사회에서 병풍이 대여의 대상이 된

역사를 조명할 것이다.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조선 사회를 추동한 성리학과 예학이 병풍이라는 매체를 통해 어떻게 시각문화로 구현되었는지를 밝히고자 기획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간 '민화(民畵)'로 정의되어 온 많은 작품이 병풍 형식으로 고안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민화로 분류되어 온 유물 가운데에는 의례에 활용하기 위하여 병풍으로 꾸며진 것이 분명한 사례들이 있다. 이들 민화 병풍은 본래의 사용 맥락이 간과된 채 조형적 특징과 도상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유형의 유물들은 본래 미학적인 감상의 대상일 뿐 아니라 의례의 도구로서 기능한 것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병풍의 화면(畫面)에 지방(紙榜)이 붙어 있는 정황이나 혼례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병풍 본래의 사용 맥락을 재구함으로써 조선 사회에서 병풍이 점하였던 특수한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예서(禮書)의 편찬과 사례용 병풍

조선 왕조를 건인한 통치 이념은 국가 건립 때부터 선택된 성리학이었다. 주자(朱子, 1130-1200)로부터 발전해 온 성리학은 조선의 사대부 사회를 운용하는 근간이 되었다. 성리학에 대한 다양한 이론은 학문적인 논쟁의 대상이자 학파와 정파를 가르는 지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송(禮訟) 논쟁은 정치적 집산(集散)의 동기로 작동하였으며 조선의 예학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왕실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에서는 예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었다.

조선 왕실에서는 국초에 『대명집례(大明集禮)』와 『주자가례』를 참고하여 국정예서(國定禮書)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간행하였다. 이러한 예서는 왕실 의례의 표준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졌다. 국정 의례는 영조(英祖, 1724-1776년 재위) 대에 이르러 한 차례 큰 정비를 겪게 되면서 『국조오례의』를 개정한 예서가 편찬되었다. 이들 예서에서는 전대(前代)와 달리 의례에 사용할 병풍의 종류와 수량을 보다 상세히 명시하였다. 예를 들어 1749년에 간행된 『국혼정례(國婚定例)』에서는 혼례에 사용하는 병풍의 종류 및 수량을 왕실구성원의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명시하였다. 1758년에 발행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왕실 상례의 절차별로 달리 사용해야 할 병풍의 종류와 수량을 제시하였다. 18세기 이후 간행된 국정예서에서는 병풍 사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지침이 수록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에서 간행한 예서에서도 발견된다. 조선 사회가 근본으로 삼았던 『주자가례』는 신분 계층을 초월하여 누구나 고조(高祖) 대까지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써 서민층에 유교 예속(禮俗)을 확산시켰다.¹ 17세기 이후에 다양한 예서가 간행되면서 조선의 예학은 심화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가례고증(家禮考證)』(1646년 간행), 『가례집람(家禮輯覽)』(1685년), 『가례원류(家禮源流)』(1711년), 『사례편람(四禮便覽)』(1844년),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1900년) 같은 예서들이 꾸준히 집필되었다.² 아울러 『주자가례』와 같은 한문본 예서의 언해본도 확산되었다.³ 이렇게 다양한 예서

-
- 1 임민혁, 「해제」, 20쪽(朱熹 著, 임민혁 역, 『주자가례』(예문서원, 1999)).
 - 2 최근 10년간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조선의 예학 자료를 집대성한 영인 성과가 나온 바 있다. 慶星大學校 韓國學研究所 編著, 『韓國禮學叢書』 1-60권(民族文化, 2009); 동일 총서, 61-122권(民族文化, 2011); 동일총서, 123-157권(民族文化, 2016).
 - 3 신식(申湜, 1551-1623)의 『가례언해(家禮諺解)』를 시작으로 예서의 언해본이 등장한 데에 대해서는 정현, 『조선 후기 祭祀圖 연구』, 경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14-15쪽.

와 『주자가례』 언해본이 간행된 것은 계층과 성별을 넘어서 조선 사회 전반에 예학이 확산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조선의 예서는 근본적으로 『주자가례』를 저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유독 병풍의 사용에 대한 세규가 추가된 경우가 보인다. 남송 대에 간행된 『주자가례』에는 의례에 병풍을 사용한다는 규정이 단 한 곳에서 발견된다. 상례 중 대렴(大斂) 시에 병풍을 생시와 마찬가지로 진설한다는 대목이다.⁴ 그런데 조선의 예서에는 병풍의 사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언급이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21권과 23권인 『상례외편(喪禮外編)』과 『상례사전(喪禮四箋)』에서 상기(喪期), 상구(喪具), 상복(喪服), 상의(喪儀)에 대한 고금(古今)의 상례학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였다. 『여유당전서』 22권 『사례가식(四禮家式)』에서는 사대부가의 관혼상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정약용은 제병(祭屏)의 사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예법(禮法)에, 사(士) 이상은 사당(廟)에서 제사지내고 서인(庶人)은 정침(正寢)에서 제사지낸다고 하였는데, 정침과 사당은 모두 방(室)이다. 대체로 방에는 유호(漏戶: 들창과 문)가 있는데, 제사를 지내려 할 적에는 유호를 열어놓고 제사를 마치면 유호를 닫는 것이 옛 제도이다. 후세의 예(禮)는 호(戶)를 닫기 전에 문을 닫는 절차가 하나 더 있는데, 『주자가례』에 “주인(主人) 이하 모두 문 밖으로 나가고 축관(祝官)이 함문(闔門)하며, 축관이 계문(啓門)하면 주인 이하 모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호는 방문(室戶)이고 문(門)은 중문(中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방문을 닫는 것이 중문을 닫는 것에 해당한다. 이는 『주자가례』와는 부합하지는 않으나 옛 제도이다. 지금 시향(時享)은 사당에서 제사지내고 기일(忌日)에는 정침에서 제사지내는데 가난한 집에서는 정침에

4 朱熹 著, 임민혁 역(1999), 앞의 책, 255쪽.

유호가 없으므로 또 다시 병풍이나 휘장으로 대신한다. 주자(朱子)도 “문이 없는 곳에는 발(簾)을 내린다.” 하였으니, 중국에서 발로써 문을 대신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병풍으로써 호를 대신하는 것이 그 뜻은 마찬가지이다. 이하는 뻔다.

옛날 궤상(簀向)은 길에서 조문사(弔問使)를 만났을 적에 집 모양을 그어 놓고 조문을 받았으니, 병풍으로 호를 삼는 것은 바로 집 모양을 그었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禮。土以上祭於廟。庶人祭於寢。寢與廟皆室也。凡室有牖戶。將祭啓牖戶。祭畢闔牖戶。古之道也。後世之禮。闔戶之前。又有闔門一節。朱子家禮主人以下皆出。祝闔門。祝啓門。主人以下皆入。卽其事也。戶者室戶。門者中門。乃吾東以闔戶當闔門。雖與家禮不合。古之道也。今時享祭於廟。忌日祭於寢。而貧薄之家。寢無牖戶。又以屏帳當之。朱子曰無門處降簾。則中國以簾而當門。吾東以屏而當戶。其義一也。以下刪。昔黃尚遇弔於道。畫宮而受之。以屏爲戶者。畫宮之義也。⁵

이 글에서 정약용은 본래 중국의 상층은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서민은 정침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이를 조선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으니 일부 조율한 지침을 쓰는 편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즉 조선의 사대부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되, 가난한 집에서는 따로 문이 없는 경우에 발을 내리는 것이 맞으니, 중국에서 쓰는 ‘발(簾)’ 대신에 우리는 병풍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정약용의 글은 이미 조선 사회에서 병풍을 제구(祭具)로 쓰는 일이 보편화 되어 있었음을 방증한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의 주해는 병풍의 정착에 이론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계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재(李穡, 1680-1746)가 집필한 후 1844년에 간행된 『사례편람』과 이를

5 丁若鏞, 「題張氏祭屏後」, 『與猶堂全書』 14. 국역은 한국고전종합DB를 참조하였다. 다만 “畫宮之義”를 ‘집 모양을 그었던 뜻’이라 번역한 것은 익명 심사자의 의견에 따랐다. 유익한 조언에 감사드린다.

증보하여 1900년에 발간한 『증보사례편람』은 조선 후기에 가장 파급력 있는 예서로 평가 받는다. 흥미로운 점은 『사례편람』에는 병풍의 사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반면 『증보사례편람』에는 병풍의 사용이 십 수 차례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다.⁶ 『증보사례편람』에는 당시의 시속(時俗)이 십분 반영되어 조선 말기에 확산되어 있던 의례 풍속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권말에는 기독교식과 천도교식 의례 절차까지 소개되어 있다. 그러한 책에 병풍의 사용이 십 수 번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의례에 병풍의 활용이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증보사례편람』에는 관혼상제의 순으로 의례의 절차가 정리되어 있는데 병풍은 네 부문에서 모두 언급되었다. 먼저 관례(冠禮) 때에는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병풍을 진설한다는 언급이 보인다.⁷ 혼례에는 신부 집에서 병풍을 구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성의 관례인 계례(笄禮)는 혼례와 함께 설행되는 경우가 많았다.⁸ 상례에서는 보다 여러 차례 병풍의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초종(初終)시에 시신을 옮길 때와 영좌를 마련할 때 병풍을 쓴다. 망자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인 대렴에서 관의 사방에 병풍을 두르고 전(奠)을 준비할 때에도 병풍을 쓴다. 이후 영구(靈柩)와 영상(靈床)을 마련한 후에도 병풍을 두른다. 죽은 지 석 달이 되어 장사를 치를 때에도 무덤에 도착하면 병풍을 친다. 또한 반곡(反哭) 때에도 영좌(靈座)에 병풍을 배설한다.⁹ 제례에서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사시제의 신위를 모실 때에 병풍을

6 이재 저, 이종찬 국역, 우봉이씨대종회 편역, 『(국역)사례편람』(이화문화출판사, 1992); 문옥표·이충구 역주, 『증보사례편람 역주본』(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7 관례용 병풍에 대해서는 문옥표·이충구 역주(2014), 위의 책, 63쪽.

8 계례용 병풍에 대해서는 문옥표·이충구 역주(2014), 위의 책, 91쪽. 혼례용 병풍에 대해서는 문옥표·이충구 역주(2014), 위의 책, 165쪽.

9 상례용 병풍에 대해서는 문옥표·이충구 역주(2014), 위의 책, 191쪽, 225쪽, 245쪽, 247쪽, 414쪽; 문옥표 외, 『조선시대 관혼상제: 상례편(1)』 II(한국정신문화연

사용한다.¹⁰

의례 용도의 병풍에 대한 기록은 단독 예서 외의 개인 문집에도 보인다. 신응순(辛應純, 1572-1636)의 『성재집(省齋集)』에는 신주를 쓸 때에 병풍을 배설하라는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¹¹ 안동 김문인 김근행(金謹行, 1712-1784)은 조상의 사당을 조성할 때에는 ‘탁상과 병풍, 돛자리, 기명을 흠결 없이 꾸미라’고 하였다.¹² 이는 사대부가의 제례에 병풍이 반드시 배설되어야 할 기물로 자리 잡은 정황을 보여준다. 『주자가례』가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병풍은 확고한 조선의 전통이 된 것이다.

Ⅲ. 사례용 병풍의 사용 양상

조선시대 사례용 병풍은 사적인 주문과 병풍전(屏風塵)에서의 매매를 통하여 유통되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화가를 고용하여 병풍을 꾸민 방식이다. 윤행임(尹行恮, 1762-1801)은 부모의 장례를 치른 과정을 『읍혈록(泣血錄)』이라는 일기로 남겼다. 이 책은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은 1771년의 부친상, 2-3권은 1798년의 모친상과 관련한 내용이 꾸려져 있다. 이 기록에는 상례의 절차와 사용된 의구가 상세하게

구원, 1999), 49쪽, 50쪽, 151쪽, 164쪽.

10 제례용 병풍에 대해서는 문옥표·이충구 역주(2014), 앞의 책, 571쪽, 596쪽.

11 문옥표 외, 『조선시대 관혼상제: 상례편(2)』 III(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44쪽.

12 金謹行, 「先府君遺事」, 『庸齋集』 15. 조상을 모시는 데에는 정성과 성의를 다해야 하며, 살림살이가 풍족하고 부족하고를 계산하지 않고, 사당에는 탁상과 병풍, 돛자리, 기명을 흠결 없이 완벽하게 꾸미고, 묘소에는 비석과 봉분, 식재(植栽)에 최선을 다해 법식을 따라야 한다[事係奉先. 竭意殫誠. 不計家力贍乏. 祠宇則床卓屏帳鋪陳器皿之屬. 華完無欠. 墓所則治石補土栽松楸灌莎蓼. 身親看檢.].

묘사되어 있어 18세기 후반 사대부가 상례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친상은 윤행임이 정조(正祖, 1776-1800년 재위)의 측근이었던 시기에 설행되었기 때문에 상례의 규모가 유독 컸다. 모친상이 나자 왕실과 규장각에서는 내사품(內賜品)과 부의(賻儀)를 윤행임가에 보냈으며 장례의 과정은 마치 국장(國葬) 의궤처럼 일자 및 절차별로 기록되었다. 무엇보다 화원화가 박인수(朴仁秀, 생몰년 미상, 1783-1834년 화원 활동)가 동원되어 직접 의물(儀物)과 도설(圖說)을 제작하였다.¹³ 박인수는 의례 삽입본과 같은 도설을 『읍혈록』에 남겼으며 관 위에 운삽(雲簪)과 불삽(鬪簪)을 그린 후 사례로 베풀어 무명 한 필씩을 받았다. 입관 시에는 2좌의 소병(素屏)이 사용되었다.¹⁴ 이는 당시 사대부 계층에서 화원화가를 동원하여 의례 용품을 제작하여 실제 활용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문헌 기록 외에 실제 의례에 사용된 병풍 유물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는 188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풍속화 및 사진 정도이다. 따라서 이 제한된 시각 자료를 남아 있는 기록과 최대한 대조함으로써 관혼상제에 사용한 병풍의 실재를 구명하고자 한다.

우선 관례에 사용된 병풍과 관련해서는 『증보사례편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관례인 계례는 대개 혼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의 관례 병풍은 ‘혼병(婚屏)’을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 일반적이었다. 『증보사례편람』에는 여자가 시집을 갈 때에 계례에 사용할 병풍 1점, 신부의 집 혼례상에 사용할 병풍 2점, 마당에서 사용할 병풍 1점을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¹⁵ 이처럼 한 번의 혼례에 여러 병풍이 준비되었던 것은 신경(申暲, 1696-1766년)과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기록에서도 재차

13 박인수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역대서화가인명사전』(하)(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731-732쪽.

14 문옥표 외, 『조선시대 관혼상제: 사례편(3)』 IV(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180쪽.

15 문옥표 외(1999), 앞의 책, 83쪽, 176쪽.

확인된다. 신경은 혼례를 행함에 있어 득남 기원을 위해 백동자도 병풍을 준비하고 완희(玩戲)를 위해 화조도 병풍을 배설한다고 기록했다.¹⁶ 유득공은 혼례병풍으로 백동자도, 괘분양행락도, 요지연도가 사용되는데 왕실이 공식 용도로 제작한 모란대병을 사족(士族)들이 제용감에서 빌려 혼례에 쓴다고 기록했다.¹⁷ 1809년 윤시유(尹詩有, 1780-1833)의 혼례에서는 백동자도를 사용하였다.¹⁸ 이를 통해 사대부 계층의 혼례용 병풍으로 백동자도, 괘분양행락도, 요지연도, 모란도가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말에 제작된 김준근(金俊根, 생몰년 미상, 1886-1900년 활동)의 풍속화첩에는 혼례 장면에 병풍이 배설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부연석(新婦宴席)〉(도1)에는 신부의 대기 공간에 8폭과 10폭 병풍을 잇대어 배설한 모습이 보인다. 복수의 병풍을 연결하여 혼례 병풍을 치는 설정은 근대기에 촬영된 사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도2). 연회장이나 무대를 꾸미기 위해 여러 병풍을 이어서 고정할 때에는 ‘홍용사(紅絨紗)’를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¹⁹ 이러한 혼례 병풍은 서양식 결혼식이 일반화 된 이래 지금까지도 폐백(幣帛)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다.²⁰

그런데 민간 혼례 병풍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
- 16 申暲, 『新婦屏障』, 『直菴集』 10; 홍선표, 「조선 민화의 새로운 관점과 이해」, 『조선 회화』(한국미술연구소, 2014), 420쪽, 529쪽에서 재인용.
- 17 柳得恭, 『京都雜誌』 원문과 번역은 이창희·최순권 역주, 『(국립민속박물관 세시기번역총서 5) 조선대세시기III: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국립민속박물관, 2007), 59-60쪽.
- 18 “…… 繩聯月老 帳垂百子 花面玉枝交透 西峰殘照回頭 暗算計 新人私舊 ……” 李晴, 「鵲橋仙」, 『窈窕帖』. 원문은 안대회, 「조정 박제가의 인간 면모와 일상」, 『한국한문학연구』 36(2005), 145쪽에서 재인용. 안대회는 원문의 ‘帳垂百子’를 ‘백동자도 병풍’으로 풀었다.
- 19 “모란병풍 영모병풍(翎毛屏風) 산수병풍(山水屏風) 글씨병풍 홍용사(紅絨紗) 구멍 뚫어 이리저리 엮어매고.” 강명관 해제, 『한양가』(신구문화사, 2008), 92-94쪽.
- 20 20세기 전반에 촬영된 혼례 병풍 사진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 『민화와 장식병풍』(국립민속박물관, 2005), 286-331쪽.

있다. 사대부들의 기록에는 혼례 병풍으로 백동자도, 요지연도, 괘분양행락도가 언급되어 있으나 정작 근대기에 촬영된 혼례 사진에는 이러한 종류의 병풍을 쓴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요지연도 병풍이 포함된 사진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백동자도와 괘분양행락도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있었는데 그 또한 혼례에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괘분양행락도를 인물에 배설한 사진 자료는 총 네 점 발견할 수 있었다. 1898년경에 촬영된 조병식(趙秉式, 1823-1907)(도3), 1902-1903년에 촬영된 카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 1876-1948)(도4), 1920년대에 촬영된 의친왕(1877-1955)의 자녀들 사진(도5), 1945년 12월 12일 종로 대각사에서 열린 임시정부 봉영회의 김구(金九, 1876-1949) 사진(도6)이다. 외부대신 조병식,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이탈리아 영사 카를로 로제티는 모두 거물급 남성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자료는 괘분양행락도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괘분양행락도는 병풍의 연결 화면 전체를 활용해야 하는 연결병풍으로만 구현이 가능하며 고가의 채색이 요구되는 화목이다. 이는 각장병풍에 비해 제작비용이 높았던 만큼 사용 계층이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요지연도, 괘분양행락도 등의 병풍이 혼례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일부 특권층에 국한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전하는 민간의 혼례 사진에는 주로 화조, 영모, 어해, 산수 병풍이 활용된 경우가 일반적이다.²¹

21 국립민속박물관(2005), 위의 책, 286-313쪽에는 1900년-1940년대까지 병풍을 배설한 의례 사진이 정리되어 있다. 같은 책 314-331쪽에는 1940년-1980년대까지 병풍을 배설한 의례 사진이 정리되어 있다. 이 밖에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민음사, 2005); 부산근대역사관,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민속원, 2009); 최석로, 『(옛 그림엽서로 본) 민족의 사진첩: 개화기의 생활과 풍속』 4(서문당, 1998)에서도 혼례 병풍 사진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이 사진 자료를 가운데 괘분양행락도, 백동자도, 요지연도 병풍을 배설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한편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에 전하는 《요화노인회첩(澆花老人回翫帖)》(도7)은 회혼례에서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 어떤 종류의 병풍이 배설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이 화첩은 1848년에 있었던 이학무(李學懋, 생몰년 미상)의 회혼을 도해하였는데 화면은 내연(內宴)과 외연(外宴)이 나뉘어 그려져 있다.²² 내연에는 6폭 모란병풍이 배설된 반면 외연에는 10폭 산수병풍이 배설되어 있다. 이를 통해 모란병풍과 산수병풍이 각각 안과 밖, 여성과 남성을 구획하는 의미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종로의 계림상회에서 판매한 혼례 용품의 목록이 남아 있다(도8). 여기서 병풍은 중요한 혼례용품으로 취급되었는데 그 재료와 주제에 따라 7원부터 300원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선택이 가능했다(표1). 병풍의 높이는 대·중·소로 삼분되어 있고 재료는 양지(洋紙), 선지(宣紙), 견(絹)으로 나뉘었다. 그 중 가장 값싼 산수영모 소병은 7원인데 반해 가장 값비싼 대형 자수병풍은 300원이었다. 고급과 저급의 가격차가 43배가 나는 만큼 고객층도 분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는 예산에 따라 모든 계층이 형편에 맞는 혼례 병풍을 선택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²³

관혼상제 가운데 가장 여러 절차에서 병풍이 사용된 의례는 상례이다. 예서에 따르면 초종, 대렴, 전, 반곡에서 병풍을 사용하는데 실제 활용 양상은 김준근의 풍속화첩을 통해 고증이 가능하다. 현재 덴마크와 프랑스에 남아 있는 《기산풍속도첩》 속의 〈사람 죽은 모양〉(도9)과 〈소대상 지내는 모양〉(도10)에는 4폭·5폭·6폭의 소병을 배설한 것이 보인다. 이들 소병

22 1848년 《요화노인회첩》에 대한 소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미국예일대학교도서관소장 한국문화재』(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114-121쪽.

23 계림상회가 취급한 병풍에 대한 논의는 김수진, 「19-20세기 병풍차(屏風次)의 제작과 유통」, 『미술사와 시각문화』 21호(2018), 57-58쪽.

표1-1926년 계림상회에서 판매한 병풍의 종류 및 가격 목록

화제	종류	폭수	크기	가격
산수영모	화(畵)	10폭	소병	7원
			중병	9원
			대병	15원
양지본능화지제(洋紙本綾畵紙製) 병서화료(並畵畵料)	서화 (畵畵)	10폭	소병	40원
			중병	50원
			대병	60원
선지본삼팔주제(宣紙本三八紬製) 병서화료(並畵畵料)	서화 (畵畵)	10폭	소병	50원
			중병	60원
			대병	80원
견본면제(絹本綿製)	화(畵)	10폭	소병	110원
			중병	130원
			대병	140원
면제수병(綿製繡屏)	자수 (刺繡)	10폭	소병	230원
			중병	260원
			대병	300원

너머에는 영구가 안치되어 있었을 것이다.²⁴

제례와 관련해서는 일제강점 직후인 1914년에 발간된 이마무라 도모(今村 鞆, 1870-1943)의 『조선풍속집』에 ‘가난한 자는 베로 신위를 만들고, 또한 너무 가난한 자는 지방을 이용하여 병풍 혹은 돛자리에 붙여서’ 제사를 지낸다는 묘사가 남아 있다.²⁵ 이는 1934년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의례준칙(儀禮準則)』에서 ‘독(櫝)에 지방을 붙여 사용하거나 독이 없을 경우 병풍이나 백지류에 지방을 붙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정책과도 맞물린다.²⁶

24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프랑스국립기메동양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139쪽.

25 이마무라 도모는 1908년 통감부 순사를 지낸 인물이다. 이마무라 도모 저, 홍양희 역, 『조선 풍속집』(민속원, 2011), 94-95쪽; 이마무라 도모의 저작과 병풍 관련 언급에 대한 원문 및 분석은 정현(2017), 앞의 논문, 23쪽에서 재인용.

26 1934년 본 『의례준칙』에 나타난 병풍 관련 언급에 대한 원문 및 분석은 정현

이들 문건에서 병풍은 사치 품목이 아닌 가장 기본이 되는 제구로 묘사되어 있다. 또 하나 제병의 실제 활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유력 가문의 종가에 전해지는 병풍의 사례이다.²⁷ 대표적인 종가인 의성김씨 학봉 종택에서는 제례 때 이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병풍을 동시에 배설한다(도 11).²⁸ 이 중에는 17세기에 제작된 <무이도가(武夷權歌) 8폭 서병>(도 12)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작인 <6폭 소병>(도 13) 류가 포함되어 있다. 병풍의 화제나 크기에 구애 받지 않고 여러 종류의 병풍을 배설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양태는 이미 1924년에 무라야마 치준(村山智順, 1891-1968)이 촬영한 사진(도 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에서도 제사에 병풍을 채색 여부나 크기의 구분 없이 여러 점 한꺼번에 배설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고사인물도 12폭 병풍, 10폭 소병, 단병(短屏) 형식의 6폭 소병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병풍의 높이와 폭의 수가 모두 다르며 수묵과 채색이 뒤섞여 있다. 이는 서유구(徐有矩, 1764-1845)가 ‘제사에는 수묵산수도, 규방에는 채색인물도를 사용한다[大抵齋中宜淡墨山水閨閣宜彩畫人物]’고 기록한 바가 실제 민간에서 철저히 적용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²⁹ 특히 소병 위로 겹겹이 쌓인 고사인물도 병풍 중에는 화려한 채색이

(2017), 앞의 논문, 24-25쪽.

- 27 영남의 종가에서 사용하는 제례 병풍을 조사한 이상국은 이황 종가, 이현보 종가, 정경세 종가, 이현일 종가, 김종직 종가, 장현광 종가, 장말손 종가, 정탁 종가, 정세아 종가에서 글씨 병풍을 사용하고 있으며 류성룡 종가와 이언적 종가에서는 소병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상국, 「경상도 유교문자도 연구」, 『민화연구』 2(2013), 113쪽.
- 28 학봉 가문의 종손이었던 김시인(金時寅, 1917-2008)의 삼년상의 전 과정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간행한 『삼년상: 소운 김시인』에 사진과 함께 잘 정리되어 있다. 김시덕 글, 정명섭 기획총괄, 『삼년상: 소운 김시인』(국립민속박물관, 20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시덕 학예연구관은 불천위제사를 지내는 문종들에서 제례용 병풍의 종류를 따로 제한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주었다.
- 29 徐有矩, 「屏」, 『林園十六志』(徐有矩, 『林園十六志』(保景文化社, 2005), 447쪽).

가해진 것도 있어 제례의 실제에서 병풍의 화제나 재료가 엄격하게 차별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사용 병풍의 선택에는 무엇보다 제사상이 차려지는 벽면을 장엄하는 용도가 우선했던 것이다. 특히 복수의 병풍을 소유하기 어려웠던 기저층에서는 채색 병풍을 제례에 사용하는 일도 빈번했다. 제주도과 강원도 지역에서 수집한 제례용 병풍 가운데에는 문자도, 책가도, 화조도, 영모도 등의 채색 병풍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³⁰

IV. 사례용 병풍의 내용과 형식

조선 후기에 양반 의식을 갖춘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교 의례를 설행하는 계층도 점차 늘어났다. 양인 신분의 획득에 성공한 이들은 기존의 상부 질서에 편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교 의례를 행하였다. 이로 인해 의구로서의 병풍 사용은 보다 활발하게 확산되었다. 이제 병풍의 향유는 유자(儒者)로서의 미덕인 절제와 검약을 배반하는 행위로 연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의례 용도로 병풍을 소유하는 것은 유자 공동체로의 편입을 증명하게 되었다.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유교의 근본이념을 시각화한 문자도의 유행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문자도는 조선 전기부터 기원이

30 가회민화박물관 윤열수 관장은 제주도와 강원도 두 지역에 유독 민화 병풍이 많이 남아 있다는 데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 이들 대부분의 사례에서 지방이 수 겹씩 붙어 있던 흔적이 있어 실제 제사에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제례용으로 사용된 병풍의 작례를 분석해보면 수목과 채색을 가리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한 면은 수목, 다른 한 면은 채색이 된 양면 병풍도 크게 선호되었다. 강원도 병풍에 대한 논의는 윤열수, 「關東地域을 中心으로 본 孝悌文字圖 作家 研究」, 『동악미술사학』 7(2006); 윤열수, 「강원도 지역 민화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9(2008); 제주도 병풍에 대한 논의는 정병모, 「제주도민화연구: 문자도 병풍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24(2005).

보이기 시작하나 후기에는 점차 형식 분류만으로 경상도, 제주도, 강원도 등지의 지역 구분이 가능하리만치 폭넓게 제작되었다. 당시에 지방 화단의 형성이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었음을 고려하면 지방에서의 병풍 제작이 활성화된 것만으로도 괄목할 만하다. 아울러 민간에서 병풍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한 ‘양면 병풍’의 등장도 주목된다. 하나의 병풍으로 길사(吉事)와 애사(哀事)에 모두 사용할 수 있었던 양면 병풍은 의구로서 병풍이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한 결과이다.

1. 문자도 병풍

민간에서 제작한 병풍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종류는 문자도이다. 글씨를 그림으로 그린 문자도로는 여러 종류가 전하지만 그 중 가장 흔한 것이 ‘효제충신예의염치(孝弟忠信禮義廉恥)’라는 여덟 글자를 그린 병풍이다. 이 문자도는 조선시대에 가장 일반적이었던 8폭 병풍 구성에 조선 사회가 지향한 핵심 이념을 담은 시각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유교 이념이 담긴 병풍을 의례에 활용한 것은 유교 이념이 실천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조선 초기부터 병풍은 ‘바라봄으로써 수양’한다는 ‘관성(觀省)’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로 인해 귀감이 되는 글씨나 그림이 병풍으로 꾸며져 왕세자를 교육하고 군왕의 처신을 통제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실록에는 ‘관성’을 위하여 왕실 구성원에게 감계(鑑戒) 병풍을 내리라고 명한 전교가 자주 보인다.³¹ 이러한 ‘관성’ 기능이 바로 여덟 가지 이념을

31 조선 왕실에서는 감계가 되는 문구를 병풍에 써서 항시 왕실 구성원의 생활공간에 배설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1568년 『선조실록』에는 이황(李滉, 1501-1570)이 선조에게 성학십도(聖學十圖) 10폭을 올리자 선조가 이것을 ‘관성’에 쓸 수 있도록 병풍으로 만들도록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宣祖修正實錄』 卷2, 宣祖 1년

담은 병풍을 의례에 활용하고자 한 근본 동기였을 것이다. 실제 16-17세기에 왕과 사대부들이 ‘효제충신예의염치’라 쓴 서예 작품을 선물로 활용한 것은 문자도가 가지는 관성과 감제의 기능을 십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²

그런데 이 문자도는 점차 형식 분류만으로 제주도, 경상도, 강원도라는 제작지를 가릴 수 있을 만큼 지역적 특징이 뚜렷해졌다. 아울러 병풍에 지방의 흔적이 남아 있어 실제 제례에 사용되었음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³³ 대개 화면 가운데에 ‘효제충신예의염치’ 문자를 넣고 상단과 하단에는 제주도의 자연을 포함한 장식 그림을 덧붙인 구성이다(도15). 제주도 문자도는 고급 안료의 부족 탓인지 채색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대신 먹으로 낼 수 있는 시각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하여 글자를 여러 개의 선으로 장식한 경우가 많다.³⁴ 경상도 문자도는 초서체로 쓴 8개의 글자를 중심으로 중국 고사에서 따온 도안을 결합하였다(도16). 보통 높이 1미터 이하의 단병으로 꾸며졌으며 그림 외에 팔괘나 성학도설(聖學圖說)을 결합한 사례도 있다.³⁵ 선행 연구에서는 총 76점의 경상도 문자도 병풍을 발굴하여 유형을 분석한 바 있다.³⁶ 강원도 문자도는 초본(草本)의 공유를 통하여 화가의 계보가 형성되었다. 강원도 강릉과 삼척을 중심으로 활약했

12월 乙亥. 1727년에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되어 있던 이주진(李周鎭, 1692-1749)이 ‘왕세자가 효도하는 방법과 현비(賢妃)의 정순한 행실을 골라 병장(屏障)으로 만들어 조석으로 관성의 자료(觀省之資)로 삼게 하라’고 상소한 내용이 보인다. 『英祖實錄』 13권, 英祖 3년 10월 乙未.

32 조선 전기에 왕이 ‘효제충신예의염치’를 써서 신료들에게 하사하거나 신료들이 이를 써서 교환한 데에 대해서는 진준현, 「민화 효제문자도의 기원에 대하여」, 『민화연구』 2(2013), 34-42쪽.

33 주30 참조.

34 제주도 문자도의 형식에 대한 분석은 정병모(2005), 앞의 논문, 193-200쪽.

35 경상도 문자도의 형식 분류에 대해서는 이상국(2013), 앞의 논문, 127-132쪽.

36 76개의 경상도 문자도 작품 목록은 이상국(2013), 위의 논문, 134-136쪽.

던 이규황(李圭瑋, 1868-1926)을 시작으로 그의 아들인 이종하(李鍾夏, 1895-1968), 조카인 황승규(黃昇奎, 1886-1962), 그 제자들이 계보를 이었다. 이들은 보통 하단에 책가도, 화조도, 영모도 등 서로 다른 화목(畵目)을 섞고 상단에 8개의 문자를 쓴 형식을 유지하였다(도17).³⁷ 사실상 강원도와 제주도는 지리적 여건상 성리학의 발달이 가장 뒤떨어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경상도는 주지하다시피 성리학의 발달을 주도한 지역이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의 성격을 가진 지역에서 고루 문자도가 유행한 현상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성리학과 예학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달라도 의례를 실행하는 관습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척박한 자연 환경에 놓여 있을수록 의례의 실행이 활발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조선시대에 제례는 상층에서는 가문의 결집을 위한 방편이요 기저층에서는 기복(祈福)의 계기로 인식되면서 전 사회에 보편화 된 것이다.³⁸

2. 양면 병풍

병풍의 사용이 확산되고 병풍의 소유가 저변화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현상은 양면 병풍의 등장이다. 양면 병풍은 앞면 뿐 아니라 뒷면에도 화면을 꾸며 병풍의 양면 모두를 사용하도록 고안한 것이다. 이 유형은 보통 앞면을 채색의 장식화 계열로 꾸미고 뒷면을 수묵의 문인화 혹은 서예로 꾸미는 경우가 많았다. 앞면은 축연(祝宴)에 사용하고 뒷면은

37 강원도 문자도의 형식에 대해서는 윤열수(2008), 앞의 논문, 26-29쪽.

38 상층과 하층의 제사 인식에 대한 논의는 김덕균, 「효(孝)의 관점에서 바라본 선진유가(先秦儒家)의 사생관(死生觀)과 제사의식(祭祀儀式)의 실제」, 『효학연구』 창간호(2004), 299-301쪽; 이상국(2013), 앞의 논문, 112-113쪽.

표2-양면 병풍의 조합 유형

	유형	병풍의 구성		특기사항	크기(cm)	소장기관 (소장번호)
		앞	뒤			
1	회화+회화	채색 호렵도 10폭	채색 문자도 8폭	-	59.7×330.2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
2		채색 영모도 8폭	수묵 사군자 6폭	*1952년 춘파(春坡) 문일(文逸) 작.	크기미상	가회민화박물관
3		채색 백수백복도 10폭	제주도 문자도 10폭	*병풍 앞면과 뒷면의 폭 수가 동일.	크기미상	호림박물관
4		채색 문자도 8폭	수묵 화조도 6폭	-	크기미상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
5		채색 책가도 10폭	채색 문자도 8폭	-	40×320	울산박물관
6		채색 호렵도 10폭	수묵 산수도 10폭	*병풍 앞면과 뒷면의 폭 수가 동일.	103×413	국립민속박물관 (민속87690)
7		십이지신도 12폭	호작도 10폭	-	49.3×381.7	국립중앙박물관 (구4988)
8		군호도 10폭	화조영모도 8폭	-	135×45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47232)
9		산수도 8폭	문자도 6폭	-	122.2×324.8	국립민속박물관 (민속45854)
10		구운몽도 8폭	문자도 6폭	-	148×324	국립민속박물관 (민속15131)
11		문자도 10폭	화조도 8폭	-	각132.5×35	국립민속박물관 (024201)
12		채색 화조도 8폭	수묵 화조도 6폭	-	116×284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24202)
13		구운몽도 6폭	사군자도 4폭	*월파(月坡) 김영춘 (金永春) 작.	130×264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51267)
14	글씨+회화	글씨 10폭	채색 책가도 8폭	-	125×42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38828)
15		백납 10폭	글씨 8폭	-	164.5×436	클리블랜드 미술관

16		수목 포도 10폭	무이구곡 글씨 8폭	*1910년 호운(湖雲) 서병우(徐丙于) 작.	104×288	국립전주박물관 (황1546)
17		화조영모도 10폭	글씨 8폭	*1955년 제작.	77×300	국립민속박물관 (068316)
18		무이구곡 초서 10폭	호렵도 8폭	-	143.8×386.5	국립민속박물관 (민속45455)
19		산수도 10폭	취옹정기 예서 8폭	*김환익(金煥翼) 작.	102.8×408.7	국립중앙박물관 (구 5215)
20		초서 10폭	관동팔경도 8폭	-	138.5×336	국립민속박물관 (민속74427)
21		글씨 10폭	화조도 8폭	*김창익(金昌益) 작.	135.8×420	국립중앙박물관 (구8730)
22		산수어락도 10폭	글씨 8폭	-	각54×23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24198)
23		금강산도 8폭	글씨 6폭	*김창익 작.	각79.5×23.5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24199)
24		산수도 10폭	글씨 행서 8폭	-	101×38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51229)
25		문자도 6폭	글씨 행서 8폭	-	138.5×216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51261)
26		문자도 8폭	행서 서예 6폭	*황승규(黃昇奎) 작.	144.5×308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51262)
27	인쇄+회화	잡화도 10폭	인쇄 기명절지 8폭	*1922년 오세창, 이 도영, 윤용구 외 9인 제작.	166.5×395	수원박물관
28		인쇄 화조도 8폭	수목 화훼도 8폭	*소암(昭岩) 작. *병풍 앞면과 뒷면의 폭 수가 동일.	94×208	가회민화박물관
29		인쇄 산수도 8폭	채색 화훼도 6폭	*셋슈(雪舟), 케이분 〔景文〕 및 츠네노부 〔常信〕 낙관이 있음. 그러나 화풍상 이들 의 진작으로 보이지 않음.	86×29	가회민화박물관

30		인쇄 화조영모도 10폭	수목 문자도 8폭	*영율(詠律) 작.	85×300	개인소장
31	도설(圖說) +회화	성학도설 10폭	수목 화조영모 8폭	*현재는 양면이 분리 되어 두 개의 병풍으 로 개장된 상태.	133×37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6033)
32	호분(胡粉) +회화	채색 화조도 10폭	호분(胡粉) 모란도 8폭	-	110.2×346	호림박물관
33	자수+글씨	자수 송학도 6폭	두보시 초서 4폭	*소암(昭岩) 현중화 (玄中和, 1907-1997) 의 글씨.	237×471	국립민속박물관 (민속49439)
34		자수수복문자 8폭	글씨 행서 6폭	*소암(昭岩) 작.	183×355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86174)
35		자수 수복도 8폭	글씨 행서 6폭	*소암(昭岩) 작.	183.5×363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51535)
36		자수화조도 8폭	글씨 6폭	-	141.5×294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69187)
37		자수화조도 8폭	글씨 6폭	-	143.8×290.6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57651)
38	혁필(革筆) +글씨	혁필 문자도 8폭	글씨 6폭	-	128.4×272.8	국립민속박물관 (민속47243)
39	유문(油文) +글씨	유문(油紋) 10폭	글씨 8폭	-	127×46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29046)
40	자수+인쇄	자수 책가도 8폭	인쇄 산수도 6폭	-	100×228	국립민속박물관 (민속29156)
41	인쇄+낙화 (烙畵)	인쇄 산수·화조·사 군자도 10폭	낙화 8폭	-	90×31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29044)

* 본 표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 복수인 관계로 그 구분을 위하여
유물번호를 부기하였다.

제사 때 펼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표2 <양면 병풍의 조합 유형>은 양면 병풍의 다양한 조합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³⁹

양면 병풍은 대개 앞면보다 뒷면을 2폭 덜 꾸밈으로써 뒷면의 양 끝 폭을 덮개 역할로 고안하였다(도18-1, 18-2). 양면 병풍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수묵 회화와 채색 회화를 조합한 경우는 표2의 2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앞면은 채색 영모도이고 뒷면은 수묵 사군자로 꾸며졌다.⁴⁰ 병풍의 표갑에는 ‘단기사천이백팔십오년오월일(檀紀肆仟貳佰捌拾伍年伍月日) 근제(謹製)’라는 목서가 남아 있어 1952년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춘파(春坡) 문일(文逸)이라고 되어 있으며 병풍 앞면에는 봉황, 꿩, 공작, 피꼬리, 물총새, 학, 금계가 꽃과 함께 그려져 있다. 뒷면의 수묵 사군자에는 지방을 붙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는 적어도 뒷면을 제례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양면 병풍은 하나의 병풍으로 두 가지의 연출 효과를 냄으로써 병풍 소유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양면 병풍은 회화의 조합 외에도 한 면을 회화로 하되 다른 면을 자수, 호분(胡粉), 낙화(烙畵), 유문(油紋: 기름을 흘려내려 즉흥적인 효과를 연출하는 기법), 혁필(革筆), 흑지이금, 인쇄 등의 특수 기법으로 조합한 경우가 확인된다. 이러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병풍의 등장은 병풍 시장의 확산과 분화를 의미한다. 고가(高價)부터 저가(低價)의 재료가 고루 사용되어 여러 계층이 병풍을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호분, 이금, 자수는 고가의 재료와 공임이 요구된 경우이다. 이에 반해 혁필, 유문, 인쇄 기법은

39 현재 양면 병풍을 소장한 기관 중에는 유물의 앞면만을 등록한 경우가 적지 않아 향후 더 많은 수의 양면 병풍이 발굴될 것이라 생각한다.

40 작품의 도판과 논의는 윤열수, 『文字圖를 통해 본 民畵의 地域的 特性과 作家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89-90쪽.

빠르고 값싸게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병풍의 시장이 저급에서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형성된 것이다.

V. 사례용 병풍의 대여와 공동 소유

의례용 병풍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리 잡은 관행 중 하나는 병풍 대여의 정착이다. 병풍을 화가에게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借用)을 통해 공동 소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왕실은 의례를 설행할 때 이를 담당하는 임시 기관인 도감(都監)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도감의 지휘 아래 행사에 사용될 병풍이 제작되었고 이는 으레 ‘도감병풍(都監屏風)’이라 불렸다. 그런데 이러한 도감병풍이 사가로 대여되는 관행이 생긴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이른 시기 기록은 유수원(柳壽垣, 1694-1755)의 『우서(迂書)』이다. 『우서』는 1729년부터 1737년 사이에 저술된 책으로 조선 사회의 폐단을 비판한 논설이다. 책은 문답 형식을 통해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 중 「논각사파지공비(論各司派支公費)」는 관청에서 공비가 낭비되는 문제를 비판한 글이다. 여기서 유수원은 도감계병이 사가로 대여되는 일이 만연해진 세태를 비판했다. 다음은 『우서』의 일부이다.

집기(什器)·병장(屏障) 등의 모든 관물(官物)을 만드는 대로 빌려 쓰는 일이 한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소위 행하수결(行下手決: 경사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나누어 줌)·약방분아(藥房分兒: 의약청에서 관원들에게 연례에 따라 물건을 나누어 줌)·선생치부(先生致賻: 전임관에게 부의를 줌)·도감계병(都監稷屏) 등의 허다한 잘못된 관례가 공가(公家)의 재물을 좀먹는 것이 아닌 것이 없고, 또 긴요하지 않은 무거(無據)한

일들인데도 그 관례가 금석지전(金石之典)처럼 견고하여 감히 없애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什器屏障凡百官物。隨造隨借。無有紀極。此何道理。凡所謂行下手決。藥房分兒。先生致賻。都監楔屏等許多謬例。莫非耗蠹公家。不緊無據之事。而規若金石之典。牢不敢革何哉。⁴¹

이 글은 관청의 도감계병이 무분별하게 대여됨으로써 세금의 낭비가 심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군이 관청의 물자를 빌릴 필요가 없는 곳에서까지 병풍을 대여하여 큰 폐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누가 도감계병을 대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위의 「논각사파지공비」의 일부로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부분에 해당한다.

집기·병장 등의 모든 물건들 중 닳아 사라지는 것은 해당 관리로 하여금 새로 마련하여 배상하게 하되, 감히 관전(官錢)을 사용하여 개조하다 발각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직역에서 쫓아내고 장률(贓律)에 의하여 사용한 관전을 물어내게 한다면, 관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원옥(垣屋)을 신중히 돌보고 집기를 아끼는 것이 자기 집 물건과 다름없게 될 것이다.

凡什器屏障等百物。限內弊破者。責令當該官吏新備賠償。敢用官錢改造發覺者。革其職役。坐贓督徵。則爲官吏者慎護垣屋。愛惜什器。無異於自家之物矣。

여기서는 관청이 병풍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공비의 낭비를 막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언술은 1730년대에 관청의 병풍을 사적으로 대여하는 일이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41 柳壽垣, 「論各司派支公費」, 『迂書』. 국역은 유수원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우서: 신편』(한국학술정보, 2006), 155쪽. 국역에서의 부가 설명은 필자가 일부 덧붙였다.

다음 시기 병풍 대여 관련 기록은 유득공의 『경도잡지(京都雜誌)』에 보인다. 유득공은 민간에서 축연이나 혼례 시에 관청의 병풍을 대여했다고 기록하였다.

병풍에는 금강산 일만 이천 봉, 혹은 관동팔경을 그린다. 작은 병풍에는 꽃, 새, 나비, 등을 그리고 혼인에 쓰는 병풍에는 백자도나 괘분양행락도, 요지연도를 그린다. 그리고 **공적인 큰 잔치에는 제용감에서 모란을 그린 큰 병풍을 쓴다. 또 문벌이 높은 집안의 혼례 때에도 이 모란병풍을 빌려다 쓴다.**

屏畫金剛一萬二千峯或關東八景 小屏花鳥蛺蝶 婚屏百子圖郭汾陽行樂圖瑤池宴圖
公譚用濟用監牡丹大屏 土族婚禮亦借用.⁴²

위의 글에서는 왕실의 잔치를 위해 제용감에서 만든 모란대병을 사족들이 혼례 때 사적으로 빌려 쓴다고 언급하였다. 『경도잡지』가 완성된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유득공의 생몰년을 고려하면 이러한 관행은 18세기 후반의 일일 것이다. 아울러 『경도잡지』가 주로 당대 한양의 첨단 세시와 풍속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왕실 병풍의 대여는 당시 한양에서 만연하였던 풍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왕실과 사가의 문화가 시차 없이 교류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1893년에 출간된 『광례람(廣禮覽)』에는 혼례 시에 국가 관청인 선혜청(宣惠廳), 군문(軍門), 평시서(平市署), 혜민서(惠民署), 상례원(尙禮院), 내국(內國), 제용감에서 여러 물건(諸具)을 행하(行下)하거나 빌려 썼다는 기록이 있다.⁴³ 이는 사대부 계층이 혼례를 위해 병풍 뿐 아니라 다양한 기물을 관청에서 빌려썼음을 시사한다. 특히 신부 측에서 준비할 「혼례제구목록」에 ‘모란병

42 柳得恭, 『京都雜誌』 원문과 번역은 이창희·최순권 역주(2007), 앞의 책, 59-60쪽.

43 문옥표 외, 『조선시대 관혼상제: 관례·혼례편』 (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26쪽.

풍은 제용감, 고족상(高足床)은 선공감(繕工監)에서 빌리랴'라는 대목이 있다.⁴⁴ 이는 왕실의 직물을 관리했던 제용감이 사가의 혼사에 병풍을 대여하는 일을 전담한 기관이었음을 시사한다.

이 밖에도 한양의 시전 가운데 세물전(貰物廩)과 금교세가(金橋賈家)가 영업한 사실이 주목을 요한다. 세물전은 무분전(無分廩) 가운데 하나로 혼례와 상례에 필요한 기물을 민가에 대여해주는 업소였다.⁴⁵ 금교세가는 종친 및 공주·옹주의 구제(舊第)를 혼인을 앞둔 신부집에 빌려주는 곳이었다.⁴⁶ 이러한 점포의 존재는 경제력을 갖춘 경우라면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왕실의 물건을 대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왕실의 혼인 문화가 큰 시차 없이 사가와 공유될 수 있었을 것이다. 1917년 수원 영통의 오철선이라는 인물의 회갑연을 촬영한 사진(도19)에서는 금관조복 차림의 오철선이 병풍 4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금관조복은 세물전과 금교세가에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이었다.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본으로 사진의 주인공이 관원(官員)으로서 금관조복을 입었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한 복식과 병풍은 왕실의 향연용 기물 혹은 그 복제품을 전문 업체에서 대여한 것이라 추정된다.

그런데 의례용 병풍의 대여 관행은 비단 한양에서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었다. 지방의 사족들이 동계(洞契)를 중심으로 상·장례가 있을 때 병풍을 대여한 사례도 발견된다. 경상북도 경주의 양좌동에서 작성된 「경주양좌 동향약안(慶州良佐洞香約案)」은 영남지역 재지사족(在地士族)의 동계 운용

44 문옥표 외, 위의 책(1999), 30-31쪽, 221쪽.

45 세물전에 대해서는 고동환,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 변동」(이태진 외,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0), 234쪽; 조영준, 『시폐: 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동』(아카넷, 2013), 115쪽, 311쪽. 잔치에 쓰는 소반과 그릇을 전문적으로 대여한 내세기전(內賈器廩)과 세기전(賈器廩)에 대해서는 조영준(2013), 같은 책, 112쪽.

46 금교세가에 대해서는 고동환(2000), 앞의 글, 239-240쪽; 조영준(2013), 앞의 책, 295쪽.

체계를 알려준다. 이 기록은 1689년부터 1782년까지 작성된 것으로 총 12건의 문서이다.⁴⁷ 사료는 동계에 참여한 인구의 구성과 규약의 세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00여 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변천한 향약규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본래 경주 양좌동 동계의 역사는 최소 16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계중약문(契中約文)」 중 가장 오래된 것이 1689년 작성본이다. 양좌동은 양반인 경주 손씨와 여강 이씨 두 가문의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두 집안이 주로 등장한다. 문서상 손씨와 이씨는 모두 상인(上人)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에 반해 상한(常漢)이라 일컬어지는 서얼 이하의 하층민은 하인(下人)으로 기록되어 있다. 향약안의 내용은 이 동계가 주로 상장(喪葬)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것임을 알려준다. 부조(扶助) 계약의 항목은 총 10-30개 정도인데 동계가 병풍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가 상장 시에 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표3 <1689년-1782년 경주 양좌동 향약안의 병풍 대여 관련 규약>은 12건의 향약안에서 병풍의 대여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양좌동계의 계원의 규모, 상인 및 하인의 비율, 병풍과 관련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표3에서 보다시피 1689년 「경주양좌동향약안」에는 병풍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시까지 상장례에 병풍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병풍 관련 계약이 명문화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697년에 한번 ‘계약 중에 과·삼·병풍 등의 물건은 계원 외에 일절 허락하지 말며, 계원의 상장 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금지한다 [約中鏢鍾屏風等物契員外一切勿許而雖約員喪葬外不得他用事]’라는 규약이 명

47 이 문서는 현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소장되어 있다. 吳世昌 등 편, 『嶺南鄉約資料集成』(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150-169쪽과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에 원문이 공개되어 있다.

표3-1689년-1782년 경주 양좌동 향약안의 병풍 대여 관련 규약

	계원 구성	병풍 관련 내용	계약(契約)의 내용	비고
1689년	45명 (상인40명/ 하인5명)	언급 없음	*명단 뒤에 총 3개의 계약 조항 기록.	-
1697년	38명 (상인35명/ 하인3명)	계약의 항목 가운데에 “約中鏢錘屏風等物契員外一切勿許而雖約員喪葬外不得他用事(약중에 과·삼·병풍 등의 물건은 계원 외에 일절 허락하지 않으며, 계원의 상장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포함.	*계약이 총 11개 조항으로 증가.	
1708년	65명 (상인44명/ 하인21명)		*계약 10개 조항과 각각의 조항이 만들어진 유래 수록.	
1711년	81명 (상인50명/ 하인31명)		*계약 14개 조항과 각각의 조항이 만들어진 유래 수록.	
1715년			*계약 5개 조항이 추록.	
1723년	69명		*기존의 계약 14개 조항 외 4개 조항 추가.	*향약과는 별개로 ‘하인’들이 결성한 향도계(香徒契)가 운영되지 못하도록 향도계에 가담한 하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조의 양을 줄여 하인들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내용이 추가.
1724년	(상인50명/ 하인19명)		*기존의 계약 18개 조항 외 2개 조항 추가.	
1726년			*기존의 계약 20개 조항 외 2개 조항 추가.	
1728년	72명 (상인53명/ 하인19명)		*계약 22개 조항 기록.	
1733년	75명 (상인60명/ 하인15명)		*계약 22개 조항 기록. *1733년 이후에 6개 조항의 계약 추가. “파손된 기계(器械)의 경우 주가(主家)가 새로 만들어 비납(備納)하라”는 내용 포함.	-
1739년	60명 (상인49명/ 하인11명)		*26개 조항의 계약 수록.	
1750년	48명 (상인48명)		*계원 명단만 있고 계약은 따로 없음.	*계원의 전원이 상인으로 하인이 모두 향도계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1752년	70명 (상인70명)	따로 계약 목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위의 계약이 계승된 것으로 추정.		

1764년	58명 (상인58명)			이 동계는 경주 손씨와 여강 이씨의 족계가 되어버림.
1782년	54명 (상인54명)			

문화된 이후로는 1739년까지 7회에 걸쳐 동일 계약이 유지되었다. 1689년부터 1739년까지는 양좌동계에 이 지역의 상인과 하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병풍의 대여가 사족 뿐 아니라 하층민에게도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런데 1720년대부터는 양좌동에서 사족 중심의 동계에 맞서 하층민끼리 결성한 하계(下契), 즉 향도계(香徒契)가 따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사족들은 동계에서의 하층민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보다 하층민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았던지 1750년 이후로는 모든 하인이 동계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 기록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향도계에서도 병풍이 대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계에서 이미 하층민도 병풍을 사용한 바 있으며 19세기로 갈수록 기저층의 유교 의례 선행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향도계에서도 병풍이 대여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이 사례 외에도 충청남도 공주의 부전동계에서 작성한 「부전동물유치책(浮田洞物留置冊)」에서도 혼구(婚具)와 상구(喪具)가 대여된 사실이 확인된다.⁴⁸ 이 같은 사례들은 영남 지역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의례 용품의 대여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홍선대원군 이하응(李崐應, 1820-1898)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묵란도 12폭 병풍>에 장문의 제발을 남긴 바 있다(도20). 이하응은 이 글에서 ‘병풍

48 충청남도 공주의 부전계(浮田契)에서 의례용 기물을 공동 소유한 데에 대해서는 임선빈, 「조선후기 동계조직과 촌락사회의 변화: 공주 부전대동계(浮田大洞契)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80권(1993), 29-34쪽.

은 생애의 물건으로 병 조리에 요긴한 것이요, 제사 사당에 □하기 위한 것이요, 서재 안의 주요 물품이요, 혼례할 때 둘도 없는 매개이다. 병풍을 처음부터 가전할 물건으로 삼지 않고 빌려 쓰고 세내어 쓰니 이를 애용하고 한스럽게 여긴 지 오래이다. 그러나 지금 이 병풍은 빌려주거나 세내어 주지 않고 위안으로 삼는 이가 있을 것이다(以屏爲生涯物件, 養病之所爲要緊物, 祭祀之堂爲□一件, 文房之中爲主張之品, 喬禮之時爲無雙之媒. 初不以爲傳家之物, 便作借用件貰用件者, 心所痛恨久矣. 然今作此屏, 想不借貰, 以是爲慰者存也.)고 하였다. 이하응은 당시에 병풍이 가전(家傳)되지 않고 차용과 세용(貰用)의 대상으로 전락한 풍조를 비판한 것이다.⁴⁹ 당대 최고의 세도가이자 문예계의 선두주자였던 이하응이 자신이 그린 묵란도 병풍이 누군가에게 대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술한 것은 그 만큼 당시에 병풍의 대여 풍조가 만연해 있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VI. 맺음말

조선 시대에 유교 예속의 정착은 예치의 확산과 예속의 조선화와 맞물리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7세기 이래 『주자가례』에 대한 언해본과 주해본이 발간되었으며 조선의 독자적인 예서도 적잖이 간행되었다. 아울러 조선 고유의 병풍 문화가 의례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민간의 사례인 관혼상제에는 병풍의 사용이 고루 정례화 되었다. 이를 대변하는 사례로서 문자도는 지역별로 상이한 형식을 띄면서도

49 이하응이 남긴 묵란도 제발 전문의 국역은 김수진, 『조선 후기 병풍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7), 307-310쪽.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 아울러 제례용과 축연용 주제를 양면에 그린 형식의 병풍도 그 효율성으로 말미암아 크게 선호되었다. 또한 왕실의 병풍이 서울 지역 민간에 대여되거나 지방의 지역 공동체에서 병풍의 공동 소유가 이루어졌다. 이는 병풍을 의례에 활용하는 관행이 지역과 계층을 국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확산된 것임을 시사한다. 조선인들은 의례를 실천함으로써 조선 사회가 지향한 이념적 이상과 문화적 권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동안 문자도, 화조도, 책가도, 영모도 등의 주제 분류를 통해 주로 논의되었던 작례들이 사실은 공히 병풍 형식을 갖춘 것임에 주목한 성과이다. 그간 회화 연구가 개개의 화목(畫目)과 주제를 분석하는 방식이 많았던 데에 반해 회화가 왜 특정 형식을 띄는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특정 형식을 기반으로 한 회화의 용도와 기능을 논의에서 빠뜨리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많은 작품이 ‘민화’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져 본래의 사용 맥락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병풍은 지방 화단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던 시기에도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던 계층에서도 소비가 이루어진 소비재였다. 이는 병풍이 단순한 감상 용도이자 미학적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병풍은 의구이자 제구로서 조선 사회가 도달하고자 하였던 예치라는 이상을 시각문화의 산물로 구현한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병풍의 주제 및 도상 분석을 넘어서 병풍의 사용 맥락을 구명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이에 필자는 본 연구가 대상의 물질적인 사용 맥락에 주목하는 인접 학문 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같은 시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병풍이 가진 문화사적 위상과 사회사적 역할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金謹行, 『庸齋集』 15.

강명관 해제, 『한양가』. 신구문화사, 2008.

慶星大學校 韓國學研究所 編著, 『韓國禮學叢書』 1-60. 民族文化, 2008.

_____, 『韓國禮學叢書』 61-122. 民族文化, 2011.

_____, 『韓國禮學叢書』 123-157. 民族文化, 2016.

2. 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프랑스국립기메동양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_____, 『미국에일대학교도서관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_____, 『한국역대서화가인명사전』(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국립민속박물관 편, 『민화와 장식병풍』. 국립민속박물관, 2005.

_____, 『한국일생의례 자료집』. 국립민속박물관, 2011.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김시덕 글, 정명섭 기획총괄, 『삼년상: 소운 김시인』. 국립민속박물관, 2011.

문옥표 외, 『조선시대 관혼상제: 관례·혼례편(1)』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_____, 『조선시대 관혼상제: 상례편(2)』 I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_____, 『조선시대 관혼상제: 상례편(3)』 IV.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문옥표·이충구 역주, 『증보사례편람 역주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부산근대역사관,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민속원, 2009.

서예박물관·현대화랑 편, 『조선 궁중화·민화 걸작: 문자도·책거리』. 예술의전당·현대화랑, 2016.

서울역사박물관 편, 『반갑다! 우리 민화』. 서울역사박물관, 2005.

_____, 『광통교 서화사』. 서울역사박물관, 2016.

徐有矩 著, 『林園十六志』. 保景文化社, 2005.

수원박물관 편, 『병풍 속 글씨와 그림의 멋』. 수원박물관, 2011.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편, 『조선, 병풍의 나라』. 아모레퍼시픽미술관, 2018.

- 嶺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編, 『良佐洞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90.
- 吳世昌 외, 『嶺南鄉約資料集成』.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 유수원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우서: 신편』. 한국학술정보, 2006.
- 이마무라 도모 저, 홍양희 역, 『조선 풍속집』. 민속원, 2011.
- 이재 저, 이종찬 국역, 우봉이씨대종회 편역, 『(국역)사례편람』. 이화문화출판사, 1992.
- 이창희·최순권 역주, 『국립민속박물관 세시기번역총서 5) 조선대세시기Ⅲ: 경도 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2007.
- 조영준, 『시폐: 조선후기 서울 상인의 소통과 변통』. 아카넷, 2013.
- 朱熹 저, 임민혁 역, 『주자가례』. 예문서원, 1999.
- 최석로, 『(옛 그림엽서로 본) 민족의 사진첩: 개화기의 생활과 풍속』 4. 서문당,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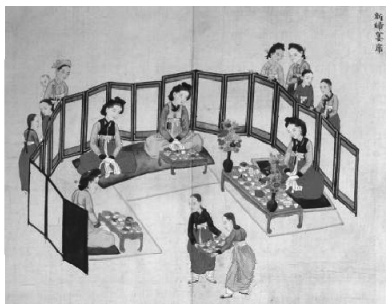
3. 논문

- 고동환, 「17세기 서울상업체제의 동요와 재편」. 이태진 외,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0, 143-209쪽.
- 김덕균, 「효(孝)의 관점에서 바라본 선진유가(先秦儒家)의 사생관(死生觀)과 제사의식(祭祀儀式)의 실제」. 『효학연구』 창간호, 2004, 290-303쪽.
- 김수진, 『조선 후기 병풍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_____, 「19-20세기 병풍차(屏風次)의 제작과 유통」. 『미술사와 시각문화』 21, 2018, 40-72쪽.
- 김윤정, 「20세기 생활공간에서의 민화(民畵)」. 국립민속박물관 편, 『민화와 장식병풍』, 국립민속박물관, 2005, 348-361쪽.
- _____, 「한국 민화의 존재와 양상: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19, 2006, 247-259쪽.
- 박근아, 「한국 근대기 인쇄 병풍화와 민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_____, 「20세기 인쇄병풍의 유행과 민화예의 영향」. 『미술사논단』 42, 2016, 83-106쪽.
- 박동철, 「병풍(屏風)으로 본 민속예술의 생산과 소비」. 『실천민속학연구』 11, 2008, 325-364쪽.

- 안대회, 「조정 박제가의 인간 면모와 일상」. 『한국한문학연구』 36, 2005, 117-150쪽.
- 윤범모, 「민화라는 용어와 개념의 비판적 검토」. 『동악미술사학』 17, 2015, 181-198쪽.
- 윤열수, 『文字圖를 통해 본 民畵의 地域的 特性과 作家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關東地域을 中心으로 본 孝悌文字圖 作家 研究」. 『동악미술사학』 7, 2006, 409-427쪽.
- _____, 「강원도 지역 민화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9, 2008, 7-36쪽.
- 윤진영, 「19세기 광통교에서 나온 민화」. 서울역사박물관 편, 『광통교서화사』, 서울역사박물관, 2016, 188-203쪽.
- 이상국, 「경상도 유교문자도 연구」. 『민화연구』 2, 2013, 107-153쪽.
- 임선빈, 「조선후기 동계조직(洞契組織)과 촌락사회의 변화: 공주 부전대동계(浮田大洞契)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80, 1993, 1-52쪽.
- 정병모, 「제주도민화연구: 문자도병풍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 24, 2005, 191-227쪽.
- _____, 「조선 민화에 끼친 유교의 영향」. 『미술사학』 23, 2009, 205-239쪽.
- 정현, 『조선 후기 祭祀圖 연구』. 경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진준현, 「민화 효제문자도의 의미와 사회적 역할」. 『미술사와 시각문화』 3, 2004, 68-95쪽.
- _____, 「민화 효제문자도의 기원에 대하여」. 『민화연구』 2, 2013, 33-58쪽.
- 차장섭, 「석강 황승규의 생애와 작품세계」. 삼척시립박물관 편, 『(삼척시립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한국의 문자도』, 삼척시립박물관, 2005, 69-80쪽.
- _____, 「민화 문자도의 상징 읽기」.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편, 『문화예술품의 고장 V: 우리 그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0, 111-122쪽.
- 홍선표, 「조선 민화의 새로운 관점과 이해」. 『조선회화』, 한국미술연구소, 2014, 410-425쪽.

도판목록

- 도1. 연대미상, 〈신부연석(新婦宴席)〉, 《기산풍속화첩》, 지본채색, 31×38.7cm, 개인소장.
- 도2. 1900년대, 혼례 사진.
- 도3. 1899년, 광분양행락도 배경의 조병식 사진, 버튼 홈스(Elias Burton-Holmes) 촬영.
- 도4. 1902-1903년, 광분양행락도를 배경으로 한 이탈리아 영사 카를로 로제티 사진.
- 도5. 1920-1930년대 추정, 의친왕(1877-1955) 자녀들의 사진.
- 도6. 1945년 12월 12일, 종로 대각사에서 열린 임시정부 봉영회의 김구 사진.
- 도7. 《요화노인회근첩(澆花老人回窠帖)》(부분), 지본채색, 43×27.4cm, 미국 예일대학교 박물관.
- 도8. 1926년, 『계림상회영업목록』, 서울역사박물관.
- 도9. 김준근, 〈사람 죽은 모양〉, 《기산풍속도첩》, 각 16-19×13-14cm, 지본수묵, 파리 기메 박물관(Musée Guimet, Paris).
- 도10. 김준근, 〈소대상 지내는 모양〉, 지본채색, 크기미상, 덴마크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Denmark).
- 도11. 2010년, 의성김씨 학봉종택 길제 장면(『삼년상: 소운 김시인』 수록)
- 도12. 17세기 제작 추정, 〈무이도가(武夷權歌) 8폭 서병〉(부분), 지본수묵, 155×440cm, 학봉종택.
- 도13. 학봉 종가 구장, 〈6폭 소병(素屏)〉, 지본무채, 134×348cm, 국립민속박물관.
- 도14. 1924년, 제사 장면, 무라야마 치준 촬영.
- 도15. 〈제주도 문자도 8폭 병풍〉, 지본수묵, 100×256cm, 국립민속박물관.
- 도16. 1888-1889년, 〈경상도 문자도 8폭 병풍〉, 지본채색, 각 84×39.5cm, 파리 기메 박물관(Musée Guimet, Paris).
- 도17. 황승규(1886-1962), 〈문자도 8폭 병풍〉, 지본채색, 136×264cm, 국립민속박물관.
- 도18-1. 〈글씨 10폭 병풍〉, 지본채색, 143.8×386.5cm, 국립민속박물관(양면 병풍 앞)
- 도18-2. 〈호렵도 8폭 병풍〉, 지본채색, 143.8×386.5cm, 국립민속박물관(양면 병풍 뒤)
- 도19. 1917년 수원 영통의 오철선 회갑연.
- 도20. 1891년, 이하응, 〈목란도 12폭 병풍〉, 견본수묵, 212.5×616.8cm, 서울역사박물관.



도1- 연대미상, 〈신부연석(新婦宴席)〉,
《기산풍속화첩》, 저본채색,
31×38.7cm, 개인소장.



도2- 1900년대, 혼례 사진.



도3- 1899년, 광분양행락도 배경의
조병식 사진, 버튼 홀스(Elias
Burton-Holmes)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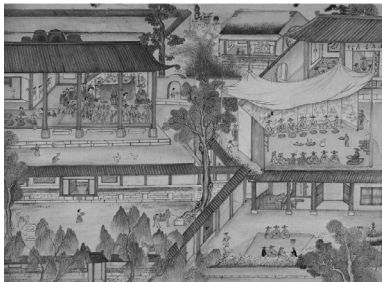
도4- 1902-1903년, 광분양행락도를 배경으로
한 이탈리아 영사 카를로 로제티 사진.



도5- 1920-1930년대 추정,
의친왕(1877-1955) 자녀들의
사진.



도6- 1945년 12월 12일, 종로 대각사에서
열린 임시정부 봉영회의 김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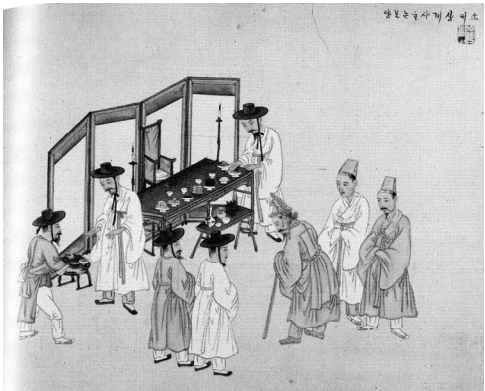
도7-《요화노인회근첩(澆花老人回簾帖)》
(부분), 지본채색, 43×27.4cm, 미국
예일대학교 박물관.



도8-1926년, 『계림상회영업목록』, 서울역사
박물관.



도9-김준근, 〈사람 죽은 모양〉,
《기산풍속도첩》,
각 16-19×13~14cm, 지본수묵,
파리 기메 박물관(Musée
Guimet,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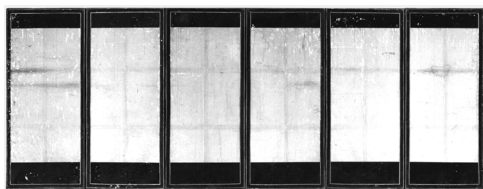
도10-김준근, 〈소대상 지내는 모양〉, 지본채색, 크기
미상, 덴마크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Denmark).



도11-2010년, 의성김씨 학봉종택 길제 장면(『삼년상: 소운 김시인』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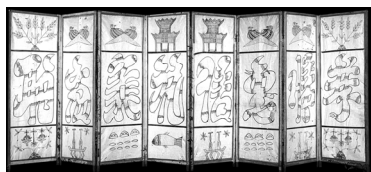
도12-17세기 제작 추정, <무이도가(武夷擢歌) 8폭 서병>(부분), 지본수묵, 155×440cm, 학봉종택.



도13-학봉 종가 구장, <6폭 소병(素屏)>, 지본무채, 134×348cm, 국립민속박물관.



도14-1924년, 제사 장면, 무라야마 치준 촬영.



도15-〈제주도 문자도 8폭 병풍〉, 지본수묵, 100×256cm, 국립민속박물관.



도16-1888-1889년, <경상도 문자도 8폭 병풍>, 지본채색, 각 84×39.5cm, 파리 기메 박물관(Musée Guimet, Paris).



도17- 황승규(1886-1962), <문자도 8폭 병풍>, 자본채색, 136×264cm, 국립민속박물관.



도18-1- <글씨 10폭 병풍>, 자본채색, 143.8×386.5cm, 국립민속박물관(양면 병풍 앞)



도18-2- <호렵도 8폭 병풍>, 자본채색, 143.8×386.5cm, 국립민속박물관(양면 병풍 뒤)



도19-1917년 수원 영통의 오철선 회갑연.



도20-1891년, 이하응, 〈목란도 12폭 병풍〉, 견본수묵, 212.5×616.8cm, 서울역사박물관.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교 의례에 서화 병풍이 활용된 양상과 그것의 사회문화사적 의미를 살피기 위해 기획되었다. 조선 사회는 유교 이념을 기반으로 통치되었으며 유교 이념은 의례(儀禮)를 통해 실천되었다. 이 과정에서 병풍은 의구(儀具)로서 왕실의 오례(五禮)와 민간의 사례(四禮)에 활용되었다. 지금까지 왕실 오례와 궁중 병풍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진척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의 유교 의례에 병풍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 후기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병풍이 진설된 문헌적 전거와 실질적인 맥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병풍의 사용을 명문화한 조선의 예서(禮書)와 관련 고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하였다. 조선의 예학은 17세기를 기점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저본으로 삼되 중국의 예서를 조선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해서가 간행되었다. 19세기로 가면 예서에 관혼상제에 각기 어떤 병풍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상세한 지시 사항이 명시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병풍 사용의 증가를 불러온 주요 동기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그간 '민화'의 범주로 논의된 작품 가운데 상당수가 문자도 병풍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실제 병풍 화면에 지방(紙榜)이 붙어 있어 의례에 활용된 것이 분명한 작례들이 있다. 이들 문자도 병풍은 제작 지역에 따라 독특한 양식을 지닌 경우가 있어 병풍 사용의 전국적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축연과 제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양면 병풍의 제작이 늘어난 현상도 논의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병풍의 대여가 상층에서부터 하층까지 확산된 현상에 주목하였다. 조선의 상층부는 왕실 소용 병풍을 직접 대여하였고 지방의 하층부는 동계(洞契)를 통하여 병풍을 공동 소유함으로써 대여 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방식들은 조선에서 병풍이 얼마나 중요한 의구로 활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조선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개념인 성리학과 예학이 어떻게 시각문화사적 결과물로 구현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아울러 의구로서의 병풍이 사용된 양상과 그것의 사회문화사적 의미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비단 미술사학 뿐 아니라 인접 학문인 문헌사학, 종교학, 유교학, 민속학의 영역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기대한다.

투고일 2019. 3. 5.

심사일 2019. 4. 15.

게재 확정일 2019. 8. 13.

주제어(keyword) 병풍(Folding Screen), 사례(Four Confucian Rituals), 문자도(Munjado), 양면병풍(Reversible Screen), 의례(Rituals)

Abstracts

Confucian Rituals and Folding Screens in the Late Joseon Society

Kim, Soojin

Neo-Confucianism was a dominant ideology of Joseon society. From the early stage of Joseon, the intellectual authorities appropriated *Zhu's Family Rituals* in order to consolidate the foundations for ruling the country. For the deeper understanding how to interpret and accept the use of folding screens for Confucian rites, I reviewed annotated editions of *Zhu's Family Rituals* so as to localize (Joseonize) the Song rites. Also, I analyzed the themes for Confucian rites such as "painting of Munja." To the surface of those examples, paper tablets 紙榜 are usually attached, indicating their actual usages for rituals. Moreover reversible screens were popularly used among commoners for the diverse purpose by possessing one folding screen. Finally, I brought light on the phenomenon of a rental system for folding screens. I believe that this study sheds new lights on the socio-cultural meanings of visual embodiment of Confucian ideology by illuminating the examples of the screen paintings.

